



St
KIM andrew

St. Andrew Kim Dae Gon Korean Catholic Church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2/27/2022

22-10

Add: 4750 Challen Ave., Riverside, CA 92503 Tel: 951-533-0580 Email: standrewkim@sbdiocese.org Website: www.standrewkimchurch.org

(녹) 8연중 제주일
(Gr) 8th Sunday in Ordinary Time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Be merciful, just as your Father is merciful.”

루카 6,36 / Lk 6:36

본당 주임 신부님(Pastor)

김대선 바오로, MSC
Rev. Paul Kim

미사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Sunday Mass

한국어 / Kor. 10:00 am
영어 / Eng. 3:00 pm

English Mass Celebrant: Fr. Ted Drennan

평일미사 / Weekday (Korean)

화/Tu 7:30 pm
수/W 10:00 am
목/Th 10:00 am
금/F 7:30 pm

성시간 / Eucharistic Adoration

첫 금요일 / 1st Friday 8:00 pm

첫 토요일 신심미사 / 1st Saturday Devotion

첫 토요일 / 1st Saturday 10 am

고해성사 / Confession

미사 30분전
(30min. before mass)

병자성사 / Anointing of the Sick

사무실 문의/Call Office

유아세례 / Infant Baptism

사무실 문의/Call Office

혼배성사 / Marriage

사무실 문의 (6개월전 신청) / Call Office (6 months advance)

사무실 업무 시간 Office Hours

일/월/화/목/금

Su/M/Tu/Th/F 9:00am-4:00pm

수/토 휴무 W/Sat Closed

본당 연락처 (Parish Contact)

사무실 (Office)	951-533-0580
총무 (Pastoral Council)	전도미니코 (Dominik Jun) 714-458-4829
연령회 (Senior Ministry)	이마태오 (Matthew Lee) 951-733-0389
전례분과 (Liturgical Ministry)	김마지아 (Matias Kim) 303-882-7022
주일학교 (Religious Ed)	송세실리아 (Irene Song) 951-346-6151

구역장 (Territory Leaders)

	(총구역장) 윤(심포로사)	
지혜	임(유스티나)	951-235-1619
통달	현(마리안나)	909-767-8155
의견	김(로사)	909-297-0809
균셈	손(테레사)	805-407-5403
효경	정(바올리나)	951-454-3182
경의	김(테레사)	951-751-5696

교황님 기도 지향 (Pope's Intention)

2월 / February

여자 수도자들과 축성 생활자들

여자 수도자들과 축성 생활자들의 사명과 용기에 감사하며, 우리 시대의 도전들에 대한 새로운 응답들을 끊임없이 찾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For religious sisters and consecrated women

We pray for religious sisters and consecrated women; thanking them for their mission and their courage; may they continue to find new responses to the challenges of our times.

연중 제8주일 (다해) / 8th Sunday in Ordinary Time (Year C)

【입당송 / Entrance Antiphon】

주님은 내 버팀목 되어 주셨네. 내가 그분 마음에 들었기에, 넓은 들로 이끄시어 나를 구하셨네.
 The Lord became my protector. He brought me out to a place of freedom; he saved me because he delighted in me.

【제1독서/First Reading】 집회 27,4-7 / Sir 27:4-7

【화답송 / Responsorial Psalm】

◎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Lord, it is good to give thanks to you.

【제2독서 / Second Reading】 1코린 15,54-58 / 1 Cor 15:54-58

【복음 환호송 / Gospel Acclamation】

◎ 알렐루야. / Alleluia, alleluia.
 ○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도록 너희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녀라. ◎
 Shine like lights in the world as you hold on to the word of life.

【복음 / Gospel】 † 루카 6,39-45 / Lk 6:39-45

【영성체송 / Communion Antiphon】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노래하리이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 이름 찬양하리이다.
 I will sing to the Lord who has been bountiful with me, sing psalms to the name of the Lord Most High.

미사지향(Mass Intention)

Date/Time	2/27 10am	2/27 3pm	3/1 7:30pm	3/2 10am	3/3 10am	3/4 7:30pm
연미사(D)	이미카엘, 김솔리안나, 양헬렌, 유시몬 신부님, 민병애 마리아 막달레나, 김대식 베드로, 이불케리아, 이웅렬 요한, 안요왕, 박바드리시아, 채말기 모니카, 변정창 마리아, 신바오로, 김아네스, 조수동, 조원석, 홍희순 카타리나		이미카엘 김대식 베드로 박문규 사도요한 류묘식 헬레나	이미카엘 김대식 베드로	이미카엘 김대식 베드로	이미카엘 김대식 베드로
생미사(L)	홍마리고레띠, 박정대 그레고리, 박정문 제임스, 김리디아, 김세례자 요한, 김다니엘, 이도미틸라, 이미자 테레사&조앤, 이마리아, 박우슬라 가정, 강재준 요셉, 고지민, 김소피아	Ulysses Picazo				

*** 미사지향 신청은 일주일 전에 신청 바랍니다.
 Please request mass intention in a week advance.

거짓 증언하지 마라.

어디를 가든지 또는, 어느 사회든지 루머(rumour)가 있습니다. 루머는 우리말의 뜻으로 ‘터무니없는 소문’, ‘뜬소문’ 등으로 풀이됩니다. 이 루머는 한마디로 정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사건이 이사람 저 사람의 입으로 전해지면서 부풀어져 본래의 내용을 왜곡되게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저 김 씨 집에 막내딸이 아랫집 황 씨 둘째 남자아이와 사귀는데, 근데 재내들은 15세인데 괜찮을까” 하고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면 이 말이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커져서 결국에는 “김 씨 막내딸이 애를 낳았는데 황 씨 둘째아들과 관계해서 낳았다고 해”라고 어처구니없이 말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루머는 ‘카더라’와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자세히 말하며 사실 여부도 확인 되지 않은, 출처도 알 수 없는, 누가 만들지도 모르는 자극적인 내용만을 담은 무책임한 말로 루머의 당사자만 고통과 상처를 받습니다. 실지로 악성 루머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이 루머는 죄가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진실에 어긋나는 말을 공공연하게 했을 때는 중대성을 띠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위증이 됩니다. 맹세를 하고도 거짓을 말하면 거짓 맹세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거짓 증언과 거짓 맹세는 무죄한 이를 단죄하거나 또 죄인을 무죄로 선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정의와 공정을 거스르게 하는 죄가 되지요.

더불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역시 진리를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이웃의 도

덕적 결점을 충분한 근거 없이 은연중이라도 사실로 받아들일 때는 경솔한 판단의 죄를, 다른 사람의 결점이나 약점을 객관적으로 타당한 이유 없이 떠벌리고 다닐 때는 비방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해치고 그 사람에 대해 그릇되이 판단하는 계기를 만들 때에 그것은 중상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런 중상과 비방은 정의와 사랑의 덕을 모두 손상시킵니다.

거짓말은 가장 직접적으로 진실을 어기는 것입니다. 거짓말의 경중은 그로 인해 왜곡되는 진실의 성격에 따라, 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와 거짓말로 피해를 입는 사람의 손해 정도에 따라 달리 평가됩니다. 거짓말 자체는 소죄이지만 정의와 사랑의 덕을 심각하게 해칠 때는 죽을 죄, 곧 대죄가 됩니다.

그러면 이 대죄는 왜 생겨날까요. 첫째, 과도한 타인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한 사람의 사생활에 집착하는 경우 상대의 존중 없이 하나부터 열까지 알고 싶고, 그것을 떠벌리고 싶은 욕구라 하겠습니다. 둘째, 은연중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살펴보면 타인의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얻는 자기만족과 뿌듯함 때문에 타인의 문제에 자기식의 해석을 보태서 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셋째, 마음이 ‘허(虛)’해서입니다. 마음에 평화나 자신 삶에 만족이 없을 경우 다른 사람을 거짓말나 ‘허풍(虛風brag)’을 통하여 자신의 무료함을 해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남을 바라보는데 있어서 먼저 자신을 잘 살펴보라는 핵심입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거짓증언 하지마라는 것은 자신의 내면 문제로서 이기심과 자신의 열등감을 타인을 업신여김으로 자신을 만족하는데 기인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짓증언으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거나 삶속에서도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기 합니다. 이와 같은 거짓증언은 현대 사회는 익명을 보장 받을 수 있는 SNS(Social Network Service)로 소통하기 때문에 거짓 정보나 근거 없는 소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피해와 상처를 입힐 수 있기에 더욱더 자신의 말과 행동을 살필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타인을 억압한다거나, 지나친 자랑이나 허풍으로 이웃을 힘들게 하지 않은지 또한, 과도한 비아냥거림으로 이웃을 업신여기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음으로서 하느님과 멀어지고 이웃을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진진하게 살펴보아야 겠습니다.

김대선 신부

Bible Trivia 1001

31. On what were the Ten Commandments written?
32. What did Jesus sleep in after he was born?
33. What was man created from?
34. What did Jesus do to each of the disciples during the Last Supper?

Answers from 2/20 Bulletin

26. Joseph 27. Psalms 28. Flood 29. He ascended into heaven 30. Pigs

You shall not bear false witness.

In any place or any community, rumors exist. Rumors mean false or incorrect information. It is a distorted piece of information while being transferred from mouth to mouth. For instance, a talk like "These two kids are a 15-year couple." can become "These two 15-year-old kids got a baby."

A rumor does not have solid grounds. It is unverified information without a source, often formed to spark interest. People related to the gossip may suffer a lot, sometimes committing suicide.

Spreading rumors can be a sin. Publicly making a false statement brings serious consequences. For example, giving false information in a court is perjury. Law gravely punishes a false statement after the judicial oath. A false testimony can make an innocent guilty or vice versa. It is a sin against justice and fairness.

Creating a false scandal is also against the truth. A rumor about someone's weakness or fault can make us sin. If we accept it without proper check, we are sinning careless judgment. If we pass it to others, we are sinning false accusations. If we make one and spread it, we sin defamation. These behaviors are against the virtues of justice and love.

A lie is a direct breach of the truth. The seriousness of a lie varies by nature and its consequence. A lie itself is a minor sin, but if it seriously harms justice and love, the lie is a mortal sin.

What is the source of such mortal sin? The first reason is too much curiosity about others. Once we get obsessed with other's personal life, we may no longer care about privacy but become gossip spreaders. The second reason is a desire to criticize others. The desire is to push up oneself by pulling down others, seeking a false self-satisfaction. The third reason is emptiness. If we do not have peace or happiness in ourselves, we attempt to fill it with a lie or a brag.

Today's gospel teaches us to look into ourselves before criticizing others. Unfortunately, we desire to satisfy our selfishness and inferiority by denouncing others. False testimonies even affect the church, causing brothers and sisters to possess traumatic memories or quit their spiritual journey. Such false testimonies spread faster in today's SNS environment, so we need to be cautious about our words and deeds. Let us look into ourselves and see if we hurt others with our talks or bragging about ourselves and denouncing others. We could be departing from God by not recognizing our problematic behaviors.

Fr. Paul Kim

교리상식 101

5. 대영광송은 왜 대림 시기와 사순 시기에는 바치지 않나요?

대영광송은 교회가 성령과 함께 성부와 성자께 영광을 드리는 대표적인 찬미가입니다. 대림과 사순 시기를 제외하고 모든 주일, 대축일과 축일, 그리고 성대하게 지내는 특별한 전례 거행 때에는 이 대영광송을 노래하거나 낭송합니다(미사 경본 총지침 53항 참조). '하느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본디 하느님의 현존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을 찬미하는 많은 노래와 기도를 '영광송'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으로 시작하는 찬미가를 '대영광송'이라고 합니다. 대영광송의 도입부는 천사들이 구세주 탄생을 찬미하는 노래(루카 2,14 참조)이고, 찬미 노래 다음에 이어지는 대영광송의 첫째 부분은 성부에 대한 찬양이며, 둘째 부분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의 노래입니다.

대영광송은 사제, 또는 필요에 따라 선창자나 성가대가 시작하지만, 그다음 본문은 모두 함께 노래하거나 신자들과 성가대가 교대로 노래하거나 또는 성가대만 노래합니다. 노래하지 않을 때에는 모두 함께 낭송하거나 두 편으로 나누어 교대로 낭송합니다. 축제의 기쁨이나 장엄한 전례 분위기를 드러내려면 성가대의 아름답고 웅장한 합창도 필요하지만, 전례의 공동체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신자들이 모두 함께 부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영광송 노래를 성가대만 부를 경우에 주례자가 자리에 앉는다면 신자들도 앉습니다. 이와 같이 대영광송은 기쁨과 환희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사순 시기와 대림 시기에는 바치지 않습니다.

전례봉사 (Liturgical Server)

Date	2/27 Sunday		3/1 Tue	3/2 Wed	3/3Thurs	3/4 Fri	3/6 Sun	
Mass Time	10am	3pm	7:30pm	10am	10am	7:30pm	10am	3pm
해설/ Narrator	송울리안나		김소화데레사	박분도	변리오바	김소화데레사	박세실리아	
독서/ Readers	신모니카 김세실리아	M. Angel Michael A.					김소화데레사 손데레사	M. Angel Esther Le Blanc
전례부/Altar Server	최클라라 박아가다	안세시리아	박아가다	안세실리아	최클라라	김마지아	김마지아 장바오로	김마지아
반주/Organist	강실비아	Juliana Cho	조울리안나	김미카엘라	김미카엘라	조울리안나	강실비아	Juliana Cho
봉헌/Offertory		Antoinette A. Cecilia Cosme						Antoinette A. Cecilia Cosme

사순시기 복음묵상과 묵주기도

저녁 9시 Zoom Meeting ID: 860 6709 3499 Passcode: 197139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목협의회(빛)	지혜(고통)	통달(환희)	효경(빛)	성가대(고통)	연령회(환희)	해설단(환희)
13	14	15	16	17	18	19
사목협의회(빛)	양업회(고통)	사목협의회(환희)	성체조배회(빛)	셀 기도회(고통)	성경공부(환희)	성무일도(빛)
20	21	22	23	24	25	26
사목협의회(고통)	성령기도회(환희)	주일학교(빛)	제대회(고통)	재정위원회(환희)	전례부(빛)	사목협의회(고통)
27	28	29	30	31	4/1	2
사목협의회(환희)	레지오(빛)	지식(고통)	경외(환희)	군셈(빛)	의견(고통)	지혜(환희)
3	4	5	6	7	8	9
사목협의회(빛)	통달(고통)	효경(환희)	성가대(빛)	연령회(고통)	해설단(환희)	양업회(빛)
10	11	12	13			
사목협의회(고통)	전례부(환희)	성체조배회(빛)	전신자(고통)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일정

주일 미사후 야외 '십자가의 길'에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예수님을 따라 걸어 봅시다.

3/6(일): 경외 3/13(일): 군셈 3/20(일): 의견 3/27(일): 지식 4/3(일): 지혜 4/10(일): 통달 4/15(금): 효경

※ 담당 구역은 각 처에서 기도하실 분을 미리 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당소식 / Parish News

- ◆ 전례부 모임 (Altar Server Meeting)
일시: 2/27(일) 10시 미사 후
- ◆ 구역장 모임 (Territory Leader Meeting) Zoom
일시: 2/28(월) 오후 8시
- ◆ 구역모임 (Territory Meeting) Zoom
효경: 3/7(월) 오후 7시
의견: 3/11(금) 꽃동네
통달: 3/12(토) 오후 7시
군샘: 3/17(목) 오후 7시
지식: 3/21(월) 오후 7시
지혜: 3/23(수) 오후 7시
경외: 3/28(월) 오후 7시
- ◆ 성지가지 회수
작년에 나누어 드린 성지가지를 회수합니다.
2월 27일(일)까지 성당 입구에 성지가지 회수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 재의 수요일 (Ash Wednesday)
일시(Date/Time): 3/2 10am(Korean)/ 7:30pm(Kor/Eng)
- ◆ 성시간 / Eucharistic Adoration
일시(Date/Time): 3/4(금/Fri) 8pm
- ◆ 첫토요일 신심미사 / 1st Saturday Devotion
일시(Date/Time): 3/5(토/Sat) 10am
- ◆ 평일미사
남가주 사제모임, 남가주 MSC 사제모임 관계로 3/9(수), 3/17(목) 평일미사는 없습니다.
There will be no weekday mass on 3/9(Wed), 3/17(Thurs).
- ◆ 주일학교 임시 비대면
현재 Omicron 확산으로 교구지침에 따라 1/9~3/31 까지 비대면으로 수업할 예정입니다.
Due to rapid increase of Omicron virus, Religious Ed will have online classes from 1/9 -3/31
- ◆ 그룹 성경공부반 성전 앞에서 모집합니다.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복음)
문의: 윤심포로사(성경봉사회): 951-966-5868



- ◆ Families interested signing up for Sunday School or would like to volunteer, please contact Irene Song at 951-346-6151

눈먼 이가 눈먼 이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느냐?

루카 6:39

2022년 교무금/교구발전기금 신립 2022 Envelope/DDF Pledge

구역	교무금	DDF
경외	\$9,000	\$4,000
군샘	\$10,460	\$1,460
의견	\$14,000	\$1,100
지식	\$8,340	\$2,510
지혜	\$18,620	\$5,142
통달	\$6,720	\$1,360
효경	\$13,900	\$2,160
기타	\$480	\$480
합계	\$81,520	\$18,212

*** 61가정 신립

◆ 2022 신립서 / 2022 Pledge Card

아직 2022년 신립서를 제출 못하신 교우분들은 성당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ubmit the pledge cards into the blue box at front of the lobby.

2/20 우리들의 정성 Weekly Contributions

주일헌금/Plate	10am: \$741 (107명) 3pm: \$159.26(15명)
교무금 Envelope	\$2,320 손경도, 박종익, 홍완선, 강두섭, 최클라라, 김분도, 김미하, 차귀환
교구발전기금 DDF	\$120 최클라라, 홍완선
합계 Total	\$3,340.26